

업종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시장 흐름이 중요한 한주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 공매도 거래대금

종목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096	1,272,846	0.9	8.7	11.0	3.4	-9.2	-7.7	-16.3	-15.1	336	524	351	2,278	10,851
KOSDAQ	691	132,698	2.2	17.9	12.7	4.2	-13.1	-11.6	-20.7	-13.5	115	249	17	584	2,907
보험	17,118	21,604	0.6	8.5	7.4	-1.8	-5.5	-3.6	-11.7	-19.0	-36	14	-2	25	142
증권	1,707	17,195	0.7	8.1	9.4	7.0	-8.0	-4.6	-19.2	-14.0	42	18	6	25	111
삼성생명	91,700	18,340	0.6	8.4	6.8	-0.4	-4.6	-4.0	-19.9	-26.3	-9	2	-1	4	23
한화생명	4,550	3,952	0.4	7.5	5.0	-1.3	-13.5	-11.3	-25.8	-34.2	-5	3	-1	0	5
동양생명	5,830	941	0.4	14.0	2.8	-3.8	-7.8	-20.9	-26.7	-23.3	0	-0	-0	0	1
삼성화재	277,000	13,123	1.1	13.4	8.2	-1.6	-2.8	3.7	3.7	3.7	0	-2	2	8	39
DB손해보험	67,400	4,772	0.9	7.4	12.3	-6.0	-6.5	5.6	8.0	-5.3	-19	14	-5	8	28
현대해상	39,700	3,549	0.8	6.8	13.5	-3.9	-5.4	7.0	6.7	-15.5	-5	3	0	8	22
메리츠화재	17,800	2,024	1.1	7.2	15.5	-4.3	-8.5	-4.0	-14.4	-24.3	2	-3	2	5	11
한화손해보험	5,970	697	0.5	5.1	10.5	-4.9	-13.0	-13.2	-19.1	-26.7	-0	0	0	0	1
삼성증권	28,650	2,558	0.5	7.1	7.9	4.6	-10.2	-11.0	-21.3	-21.7	7	-1	2	2	13
미래에셋대우	6,950	4,575	0.6	8.0	7.7	4.2	-15.7	-13.4	-27.0	-24.4	-1	2	0	0	0
NH투자증권	13,450	3,785	0.8	9.5	8.6	10.2	-2.9	4.3	-11.8	-3.2	24	-5	4	0	0
한국금융지주	66,200	3,689	0.9	6.4	14.5	8.0	-8.7	-3.6	-26.2	-4.1	14	-9	1	0	0
키움증권	83,500	1,845	1.0	7.4	15.8	17.4	-6.1	-7.6	-28.6	-4.7	11	2	-1	0	0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하락하였음. 주 후반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반등이 크게 진행되면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음. 이에 따라 그동안 강세를 시현하였던 보험업종이 약세를 시현하였음. 보험업종의 주도주 역할을 하였던 DB손보와 현대해상의 경우 5%내외의 등락이 3일동안 나타나는 등 수급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됨

▶ **자동차보험료 관련 뉴스:** 보험사와 정비소간의 정비수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보도되었음.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 주장과 감독 당국의 말을 인용한 보험료 인상 최소화 보도 등이 계속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는 한주였음. 당초 우리는 11월 중순에 보험료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지연 가능성이 최근 확인되고 있음. 다만 정비소와 협상을 통해 원가는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오래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증권 증권업종 강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KOSPI 및 KOSDAQ이 주간단위로 3.4%, 4.2% 상승하며 급 반등세를 시현하였으며 그동안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반등 폭이 적었던 증권업종이 전주에는 반등에 동참하였음. 가격 매력에 부각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 정부는 초기 중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있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특히 비상장, 혁신 초기 기업에 자금 공급을 위해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자산유동화 대상 및 조건 확대, 사모발행 범위 확대, 비상장 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레버리지 비율 및 신용공여한도에 별도 한도 부여 등을 제시했음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증권사들의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대형사에게는 자본효율성 제고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임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종목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QoQ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MoM	4Q17	1Q18	2Q18	3Q18	4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
KOSPI+KOSDAQ	10.0	11.1	12.4	9.0	8.8	10.8	9.6	9.9	3.6	11.8	13.8	13.9	9.4	9.6	2.1	
KOSPI	6.5	21.5	7.5	5.5	5.2	6.1	6.1	6.4	4.6	6.0	7.0	8.1	5.6	6.1	10.1	
KOSDAQ	3.5	-4.0	4.9	3.4	3.5	4.7	3.5	3.5	2.0	5.8	6.8	5.8	3.8	3.5	-9.4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
KOSPI+KOSDAQ	9.0	-8.9	11.8	10.8	11.3	11.8	9.3	9.0	-3.8	9.8	11.3	11.8	11.8	9.0	-23.7	
KOSPI	4.7	4.2	6.0	5.5	5.7	5.9	4.8	4.7	-3.3	4.5	5.4	6.0	5.9	4.7	-21.0	
KOSDAQ	4.3	-19.8	5.8	5.3	5.6	5.9	4.5	4.3	-4.4	5.4	5.9	5.8	5.9	4.3	-26.3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1년	1.81	-0.8	1.85	1.83	1.73	1.85	1.80	1.81	0.9	1.85	1.89	1.85	1.85	1.81	-3.3	
3년	1.98	-13.5	2.12	2.13	1.91	2.00	1.94	1.98	3.8	2.13	2.22	2.12	2.00	1.98	-2.2	
5년	2.12	-22.0	2.35	2.36	2.10	2.18	2.08	2.12	4.0	2.35	2.43	2.35	2.18	2.12	-6.0	
10년	2.28	-21.2	2.56	2.57	2.31	2.36	2.25	2.28	3.5	2.47	2.62	2.56	2.36	2.28	-7.5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삼성증권	5.4	-0.5	6.0	6.1	6.0	6.0	5.6	6.1	0.4	6.0	6.2	6.2	6.0	5.7	-0.4	
미래에셋대우	11.7	-0.9	12.3	12.4	12.2	12.3	11.7	12.0	0.7	13.2	13.3	12.8	11.7	12.0	-0.3	
NH투자증권	6.2	0.2	6.4	6.5	6.9	6.5	7.3	6.4	-0.9	6.4	6.3	6.4	6.6	7.2	0.6	
한국금융지주	5.7	-0.1	5.1	5.3	5.4	5.6	5.4	5.6	0.2	5.8	5.7	5.3	5.4	5.4	-0.0	
키움증권	15.0	-1.5	17.9	16.9	17.4	17.4	15.9	16.0	0.1	17.4	17.5	18.2	17.2	15.9	-1.3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 금주에도 대외 변수가 중요한 한주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주에도 확인되었지만 국내 경기나 업황보다는 미국무역분쟁/신중국 환율/미국금리 등에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었기 때문임
- 전주 반등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가능성이 트위터에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금주 미국의 중간선거는 여러 대의 이슈들에 대한 판단을 다시금 해야 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됨
-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주 보험업종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의 반등과 방어주에 대한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함. 따라서 미국의 중간선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업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우리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위한 것보다는 패권전쟁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간선거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해결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2019년 한국의 경기 우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고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을 권유함
- 우리는 DB손보, 현대해상을 최선호 종목, 삼성화재를 관심종목으로 유지함

증권

- 금주 증권업종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너무 당연한 이야기)
- 다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우 좋았으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1%를 시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더해주었다고 생각됨. 따라서 금리와 관련된 압력은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됨.
- 10월 증권업종 주요 지표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일평균거래대금은 9.6조원으로 3분기 평균대비 1.8% 높은 수준이며 ELS 조기상환 역시 4.1조원으로 3분기 평균 2.7조원대비 회복되었음(발행 또한 5.8조원으로 3분기 평균 4.8조원대비 높은 수준임). 또한 정부의 자금공급에 있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리 관련 압력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10월 지표를 통해 시장 반등시 동참할 수 있는 펀드멘털까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함
- 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1월 5일	미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10월)	54.7	54.7
11월 6일	미국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10월)	61.6	59.3
11월 7일	미국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률 조사 (JOLT) 빈 일자리 수 (9월)	7.136M	
11월 8일	미국	원유채고	3,217M	
11월 9일	중국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MoM) (10월)	0.7%	0.2%
11월 9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MoM) (10월)	0.2%	0.2%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 ▶ **보험업 "상반기 후보험 손해율 3.9%p 상승...보험료 제 때 조정해야" (조선비즈)**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1.7%로 전년 동기(77.8%)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인니서 손잡은 하나은행과 네이버... "세계 4위 인구 디지털금융 공략" (조선비즈)**
하나은행과 네이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손을 잡았음. 네이버(NAVER)의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LINE)이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의 2대주주가 될 것임
- ▶ **가계부채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나온다...은행연합회 30일 확정 (조선비즈)**
가이드라인에는 고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기준을 70%로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시중·지방·특수은행 등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대출 관리규율이 담길 예정임
- ▶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조선비즈)**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억원(8.0%) 증가했다고 밝혔음
- ▶ **가계대출 억제에 3분기 주금공 주택저당증권 발행 21% 감소(TBS)**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발행 규모가 크게 줄었음
- ▶ **실적 악화된 카드사 '3중 쓰나미' 덮쳐 (매일경제)**
카드사 실적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를 연내에 추가로 내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 ▶ **빚장 풀리는 부동산신탁... 금융사, 시장 진출 눈치작전 (이투데이)**
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 **KB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않기로... "시장침투율 2% 불과" (뉴스핌)**
KB금융그룹이 사실상 제 3, 4의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 ▶ **간편인증으로 5분만에 대출... 카카오페이 흡수 보험사들 (디지털타임스)**
최근 카카오페이 손잡고 모바일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음
- ▶ **후보험료, 정공법 대신 우회 인상? (파이낸셜 뉴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인 78%를 넘어섰지만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데다 3·4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일문일답] 최종구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 늘리고 수수료율 인하" (조선비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함
- ▶ **신규취급 가계대출금리 두달 연속 하락...9월 3.62% (노컷뉴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두달 연속 소폭 하락했음
- ▶ **손보사 '반려견 보험' 경쟁...미등록견 가입 문제로 논란 (연합뉴스)**
반려견 시장에 앞다퉀 뛰어드는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 '미등록견' 가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 ▶ **한투증권, 부동산신탁업 출사표 (건설경제)**
한국투자증권이 풍부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부동산신탁업에 진출 모색중임
- ▶ **금융당국, 대형GA 내부통제 강화한다...준법감시인 조직 의무화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준법감시인 조직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는 지적을 받은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음
- ▶ **신한금융, 아시아신탁 인수... 부동산신탁 경쟁 가세 (동아)**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5위의 부동산신탁사인 '아시아신탁'을 사들이며 부동산신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
- ▶ **미래에셋생명, 2천억원 후순위채 발행 추진 (연합뉴스)**
미래에셋생명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에서 최대 2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음
- ▶ **후보험료 인상 코앞...손보사 "4~6% 올려야" (매일경제)**
자동차보험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될 전망이다
- ▶ **퇴직연금, 저축액 예적금 편입한다... "1%대 수익률 탈피 기대" (조선비즈)**
11월부터 저축은행의 평균 2%대 예·적금 상품이 있더라 퇴직연금 상품에 편입된다.
- ▶ **사랑보험금 주는 중신보험 해지 최대...민원도 급증 왜? (NEWS1)**
매달 평균 10만원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내는 중신보험 해약이 매년 사상 최대로 늘고 있음
- ▶ **NH투자증권 사옥 매각추진...매각가 조사 '돌입' (건설경제)**
NH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본사사옥(사진) 매각을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했음
- ▶ **[단독] 삼성생명, 분조위 권고 수용...암보험금 지급한다 (머니투데이)**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음
- ▶ **[단독] 삼성생명 인축경영...공로휴직 전격 시행 (서울경제)**
신(新)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에 삼성생명이 근속 2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로휴직 등에 착수했음
- ▶ **금투사도 '부동산신탁사 세 자리' 눈독 (아주경제)**
금융투자사도 새로 풀리는 '부동산신탁사 세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096		0.9	8.7	9.8	9.2	3.4	-7.6	-8.4	-14.8	-15.1
	보험	17,118		0.7	8.1	6.6	0.6	-1.8	-5.7	-3.5	-11.0	-19.0
	삼성생명	91,700	16.4	0.6	8.3	6.7	0.7	-0.4	-4.6	-3.7	-19.2	-26.3
	한화생명	4,550	3.5	0.4	6.9	5.7	0.4	-1.3	-13.5	-11.0	-25.3	-34.2
	동양생명	5,830	0.8	0.4	8.8	5.3	0.4	-3.8	-7.8	-21.1	-28.2	-23.3
	삼성화재	277,000	11.7	1.0	11.8	9.0	1.3	-1.6	-2.8	4.3	2.2	3.7
	DB손해보험	67,400	4.3	1.0	7.7	13.0	1.5	-6.0	-6.5	3.7	6.8	-5.3
	현대해상	39,700	3.2	1.0	7.3	14.7	1.1	-3.9	-5.4	7.4	5.7	-15.5
	메리츠화재	17,800	1.8	1.1	7.9	14.1	1.3	-4.3	-8.5	-4.3	-13.4	-24.3
	한화손해보험	5,970	0.6	0.6	4.3	11.3	0.9	-4.9	-13.0	-15.0	-18.9	-26.7
	증권	1,707		0.6	7.5	8.7	0.9	7.0	-5.0	-5.4	-21.3	-14.0
	삼성증권	28,650	2.3	0.6	6.8	8.4	1.0	4.6	-10.2	-11.6	-21.4	-21.7
	미래에셋대우	6,950	4.1	0.5	7.5	7.4	0.7	4.2	-15.7	-14.1	-26.8	-22.6
	NH투자증권	13,450	3.4	0.8	9.5	8.4	0.9	10.2	-2.9	3.5	-10.9	-3.2
한국금융지주	66,200	3.3	0.9	6.0	14.5	1.3	8.0	-8.7	-5.0	-24.8	-4.1	
키움증권	83,500	1.6	1.0	6.8	15.6	2.2	17.4	-6.1	-10.2	-28.9	-4.7	
일본	Nikkei225	22,244		1.7	15.9	10.5	2.1	5.0	-6.5	-1.2	-1.0	-2.3
	보험	1,074		0.8	11.2	7.0	0.9	4.7	-5.1	4.2	2.6	1.3
	Dai-ichi Life Holdings	4,198	26.3	2.3	48.9	4.7	2.6	-4.0	-15.2	-8.7	9.8	42.9
	Japan Post Insurance	2,719	14.4	0.8	17.8	4.6	0.1	1.8	1.4	14.2	1.3	2.6
	Tokio Marine Holdings	5,510	35.0	1.0	15.1	7.3	1.1	6.9	-0.4	4.8	6.1	7.2
	증권	393		0.8	12.2	5.6	0.2	3.0	-5.8	2.0	-8.1	-9.5
	Nomura Holdings	525	16.9	0.6	7.3	9.0	0.6	-0.6	-3.9	1.2	-14.9	-21.1
	Daiwa Securities	654	9.8	0.8	10.1	8.6	0.6	0.5	-3.9	-0.3	-1.0	-7.5
	SBI Holdings	3,210	6.7	1.6	14.0	11.9	1.2	12.6	-6.3	10.4	7.9	36.2
	중국/홍콩	Hang Seng	26,486		1.2	11.1	12.9	1.1	7.2	-0.3	-4.3	-11.5
상해A주 지수		2,803		1.2	11.0	12.3	1.1	3.0	-5.1	-2.3	-13.4	-19.1
보험		141		1.3	11.9	10.6	1.7	5.2	2.5	0.5	-8.6	-21.7
China Life		17	84.4	1.2	13.8	9.6	1.1	4.9	-4.2	-11.6	-23.9	-31.8
Ping An Insurance		79	181.0	2.3	12.5	20.0	1.5	6.3	2.3	12.8	4.8	-2.5
AIA		64	99.2	2.3	19.9	12.3	2.4	8.2	-2.4	-2.9	-7.4	-3.6
증권		93		1.2	21.4	6.0	9.9	7.3	7.0	7.9	-21.4	-26.3
CITIC Securities		15	29.8	1.0	14.0	7.6	1.9	11.7	10.6	1.1	-20.6	-6.7
Haitong Securities		9	15.3	0.7	12.5	6.0	1.6	12.2	21.9	17.4	-18.3	-23.8
Huatai Securities		14	19.8	0.9	13.7	7.0	1.9	13.7	22.0	17.8	-13.8	-11.7
미국	S&P500	2,723		3.1	16.7	19.0	3.4	2.4	-5.6	-4.1	2.2	1.8
	보험	370		1.3	11.7	11.1	1.4	3.6	-6.4	-4.3	-3.0	-7.9
	AIG	43	38.3	0.6	15.1	5.2	0.5	5.8	-18.8	-19.3	-16.7	-27.4
	Metlife	44	43.0	0.9	8.2	10.6	0.7	10.2	-7.3	-3.8	-2.4	-13.8
	Prudential Financial	96	40.0	0.8	7.8	11.0	0.6	6.4	-6.4	-3.5	-1.7	-16.6
	증권	186		2.0	13.4	13.6	1.3	5.3	-6.0	-7.0	-8.7	-8.2
	JP Morgan	108	360.4	1.5	11.8	13.6	1.3	4.8	-5.8	-7.4	1.1	1.3
	Goldman Sachs	230	88.8	1.1	9.1	13.0	1.1	8.2	0.8	-1.9	-1.6	-9.8
	Charles Schwab	47	62.9	3.4	19.1	19.4	1.3	7.8	-8.3	-7.4	-15.3	-9.3
	유럽	MSCI Europe	123		1.7	13.7	9.9	1.1	3.3	-3.2	-6.2	-5.8
보험		74		1.1	10.6	12.8	1.0	4.0	-3.5	-1.1	-5.7	-3.6
Allianz		185	89.3	1.2	10.4	11.7	0.8	3.2	-3.9	-1.3	-6.3	-3.4
AXA		22	61.4	0.8	8.7	8.8	3.8	2.0	-4.3	0.8	-0.8	-10.1
Prudential plc		1,616	54.3	2.4	10.7	22.7	0.7	8.0	-6.6	-7.5	-14.2	-15.2
Munich Re		189	32.2	1.0	11.1	9.1	5.5	3.2	-0.7	0.6	-1.3	4.7
증권		66		1.0	13.8	6.5	0.3	5.5	-6.1	-10.5	-13.3	-16.5
UBS		14	54.9	1.0	10.5	9.7	0.5	7.9	-7.7	-11.9	-10.3	-19.4
Credit Suisse		13	33.0	0.8	12.5	5.9	0.3	4.0	-10.0	-17.6	-19.9	-24.3
Deutsche Bank		9	21.6	0.3	25.9	0.8	0.0	7.9	-4.3	-14.6	-18.8	-42.1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현재	금리 수준 (%)						변동폭 (bp)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12	1.839	1.846	1.821	1.845	1.853	-2.7	-3.4	-0.9	-3.3	-4.1
		3 Year	1.980	1.970	2.015	2.110	2.237	2.134	1.0	-3.5	-13.0	-25.7	-15.4
		5 Year	2.115	2.080	2.190	2.360	2.517	2.347	3.5	-7.5	-24.5	-40.2	-23.2
		10 Year	2.280	2.252	2.375	2.572	2.747	2.467	2.8	-9.5	-29.2	-46.7	-18.7
		일본	국고채	1 Year	-0.145	-0.141	-0.125	-0.099	-0.134	-0.145	-0.4	-2.0	-4.6
10 Year	0.129			0.113	0.130	0.126	0.045	0.048	1.6	-0.1	0.3	8.4	8.1
중국	국고채	1 Year	2.826	2.848	2.969	2.801	3.009	3.834	-2.2	-14.3	2.5	-18.3	-100.8
		10 Year	3.554	3.551	3.625	3.478	3.686	3.902	0.3	-7.1	7.6	-13.2	-34.8
미국	국고채	1 Year	2.675	2.610	2.571	2.414	2.234	1.732	6.5	10.5	26.1	44.1	94.4
		10 Year	3.212	3.076	3.063	2.986	2.966	2.405	13.7	14.9	22.6	24.6	80.7
유럽	국고채	1 Year	-0.582	-0.607	-0.543	-0.520	-0.557	-0.611	2.5	-3.9	-6.2	-2.5	2.9
		10 Year	0.428	0.352	0.422	0.460	0.581	0.427	7.6	0.6	-3.2	-15.3	0.1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의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